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장수군, 국가지점번호관 추가 설치

무주군, 대상액 65%인 2164억원 상반기 중 집행

무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목표액은 2,164억원으로 신속집행 대상액(3,329억원)의 65%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관리와 ▲신속집행 조정, ▲계약사무 추진, ▲자금지출을 관리할 신속집행 추진단(단장 송금현 부군수)을 구성·운영하고 긴급입찰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활용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물품과 재료를 선 구매하고 ▲임차료 등은 선 지급하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입찰 추진과 심사기간 단축,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

는 등 예산 통계목별 전략적 집행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물건비와 도시구입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소비·투자 부문에 해당하는 예산액(총 3,137억원)에 대해서는 1분기에 20%(627억원)를 지출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기획실 주홍규 실장은 "우리 군의 신속집행 목표가 행정안전부 목표 수치인 55.1%보다 9.9% 높은 수준"이라며 "달성을 위해 3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세부 관리에도 집중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신속집행 실적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등 재정 신속집행 대한 동기 부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무주군 2021년 예산은 총 4,3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2억원이 증가했다. 무주군은 농림 쪽에 875억원(19.99%), 사회복지·보건 분야 792억원(18.1%), 문화 및 관광분야에 387억원(8.85%)을 편성했으며, ▲일반 공공행정, 교육, 안전 등 분야에는 283억원(6.48%), ▲환경 분야 668억원(15.25%),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95억원(2.17%),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80억원(4.16%),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 400억원(9.33%)을 편성했다. 이외 예비비와 기타 부문에 685억원(15.66%)을 편성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신속한 구조 위해 재난 발생 빈도 높은 재난위험지역 30곳

장수군이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위험지역 30곳에 국가지점번호관을 추가 설치한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국가지점번호관은 건물에 없는 비거주 지역에 격자형으로 지점(10×10M)을 나누고 산악·해안지역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 국가지점번호의 설치가 필요한 곳 지점마다 한글 2자와 숫자 8자리로 구성된 번호를 부여해 산악·해안지역 등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위치 표시 체계 번호관이다.

법정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경우 도로명판·건물번호판의 도로명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위치 파악이 곤란한 산악이나 해안 등 주요 건물에 없는 지역에서는 재난이나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없어 신속한 구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장수군은 현재까지 장안산 등산로 등 46개소에 국가지점번호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만행산 등산로 일대 등 예정지 30개소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거쳐 대상지 선정 후 오는 4월 1일까지 국가지점번호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등산, 트래킹, 낚시, 물놀이 등 야외



장수군이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위험지역 30곳에 국가지점번호관을 추가 설치한다.

활동을 하다가 응급상황 발생 시 노란색으로 표시된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하면 119 등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장수군을 찾는 등산객들이 안전한 산행으로 즐거운 여가 생활을 누리길 바란다"며 "위급 상황 발생시 국가지점번호를 찾아 119 또는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2020년 추진결과 보고·올해 추진계획안 등 심의

진안군은 18일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청 상황실에서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작년 4월 청년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로서, 문화·예술·복지·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및 위원들이 한데 모여 청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점검, 그 밖의 청년정책 발전에 관한 사

랑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2020년 청년정책 추진결과 보고 및 2021년 청년정책 추진계획(안)을 심의 받고, 주요 심의안건인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참여나이를 만 45세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2년 이내 창업요건을 7년으로 기존 완화로 검토했고, 공약사업인 청년주거비용 지원은 작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승인받은 내용

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비를 확정했다.

특히 청년들은 올해는 청년미래지원센터 이전단계인 청년공간을 마련하여 소풍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것과 청년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작년 대비 2배 증액해 추진함으로써 청년역량 및 청년소통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2021년 진안군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청년이 나아갈 방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더 나은 청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실내체육시설 방역체계 관련 긴급 현장점검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7일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내 공공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체계 및 운영사항을 시설물별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역에서 실내체육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관리 미흡 등 기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며 관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점검 및 방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긴급하게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골프 연습장, 군민체육센터 헬스장, 국공장, 문예체육회관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 실내체육시설이며 이용객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전춘성 군수는 실내 체육시설 운영 관계자들에게 "실내 체육시설 재개장에 따라 시설별 위험요인을 감안 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와 관련하여 공공 실내체육시설 이외에도 민간 실내체육시설인

태권도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11개소에 대해 19일까지 시설별 위험요인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청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개

삼삼급식소 대상 나트륨 저감 급식 운영·염도측정관리 등 점검

무주군이 나트륨 과잉섭취 예방으로 건강한 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삼삼급식을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점검에 나섰다. 무주군청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관내 음식점을 비롯해 전 군민으로까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에 동참하는 급식소와 음식점은 10%이상 나트륨을 저감해 한 끼 분량 나트륨 1,300mg 미만인 메뉴, 또는 30%이상 나트륨을 저감한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삼삼급식은 매일 한 끼 성인 1회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을 1,300mg 이하로 식단을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군청부터 동참하지는 취지로 실시된 점검은 17~18일까지 이뤄졌으며, 나트륨 저감 급식 운영 및 염도측정관리, 식단의 권장 섭취량 및 나트륨 함량 정보 게시 상태 김치의 나트륨 저감 및 염도관리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한 기준치 권장 등 적절한 사



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실천음식점 참여 독려를 위해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현판, 메뉴보드, 염도계 등의 홍보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 참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063-320-2328)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주민쉼터 신·증축 본격 추진

진안군은 18일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공간으로 이용되는 마을회관과 모정 등 주민쉼터를 신·증축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각 마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올해 신·증축을 추진할 주민쉼터로 마을회관 41개소, 모정 47개소를 선정했고 설계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쉼터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 1995년도부터 마을회관 189개소, 모정 208개소를 신축하였고, 노후 쉼터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지·보수사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여가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마을회관 306개소, 모정 268개소의 주민쉼터가 조성됐다.

올해는 총 11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쉼터 신축 및 증축, 창고교체, 노후 난방배관 교체, 지붕방수, 실내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대형 관광지 조성 공사장 안전 점검

무주군이 지난 15일부터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장에서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대형 관광지 조성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권마을 사업장을 비롯해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장, 태권 어드벤처 조성사업장 등 3개소 대형 공사장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들은 향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내다보는 무주군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대형 관광지 조성 사업들로 꼽힌다. 군은 안전 점검을 위해 해당 사업의 팀장과 감독 공무원, 현장 소장 등 점검반을 편성했다.

군은 이번 해빙기 안전 점검을 통해 ▲낙석 및 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여부, ▲토사의 슬라이딩 및 유출여부, ▲침사지, 세운 시설, 비산방지 방지시설 등 설치 여부,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